

꿈꾸는 교실

관점을 바꾸면,
창의성이 업(UP)

고민의 시작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미래형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들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이다. 창의적 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관점의 전환이다. 사람은 평소 자기에게 익숙한 관점에서만 사물을 보는데 길들여져 있어서 곧잘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은 더 창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서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주 간단한 수업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수업을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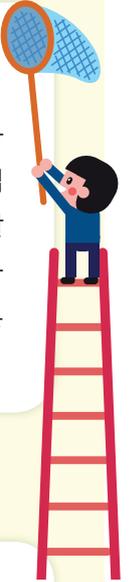
수업스케치

수업흐름	수업과정	수업활동 내용 및 전략	인성관련 요소
도입	활동 내용 설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예시문을 제시하고 예시문 속의 상황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추리하도록 유도한다. (예시문은 부록 활동지 참조)	창의성, 상상력, 공감능력.
전개1	모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문을 함께 읽고 모둠원들끼리 예시문에 대한 해석을 공동으로 작성한다. - 예시문의 상황 해석이 마무리되면 조별 대표가 그 해석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발표한다. - 선생님이 알려주는 글의 본 의도와 모둠별 해석을 비교해 본다. 	
전개2	개인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의 예시문을 참고하여 학생 개개인이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특정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동감있게 묘사하는 글을 써 본다. -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개별 작성글을 읽고 나머지 모둠원들이 상황을 유추해본다. 	
정리	상호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원들끼리 서로의 글에 대해 훌륭한 점과 아쉬운 점을 얘기해준다. - 새로운 관점에서 깨닫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나눈다. 	
평가	마무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흔히 놓치는 다른 관점들에 대한 성찰을 나눈다. 	

수업 스케치

교사가 먼저 체험하는 창의적 글쓰기

교사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세계관을 다룬 소설의 일부분 혹은 영화의 한 장면을 학생들에게 300~400자 분량의 짧은 글로 제시한다. 이러한 예시글은 상황을 묘사하는 글이어야 효과적이다. 소설작품에서 직접 인용을 해도 되지만, 수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사가 사전에 각색을 하거나 아예 창작을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예시글을 함께 읽은 학생들은 그 짚막한 이야기 토막글을 읽고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의 정체와 그가 처한 상황을 조별로 함께 추측해본다. 그 다음에 조별로 그 추측내용을 발표한 뒤, 학생들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묘사하는 자신만의 토막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의 내용 추리 협동학습

제시된 글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학생들이 유추해보도록 시간을 준 뒤 조별 토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의 발표가 마무리되면 상황묘사에 대한 글쓰이의 의도를 공개한다.



학생들의 내용 추리 협동학습

공개된 글쓰이의 의도를 들은 후 학생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사물을 하나 선택하여 그 사물의 관점에서 짚막한 이야기를 구성해보도록 한다. 상황을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하면서도 그 주인공과 이야기의 맥락을 쉽게 유추하기 어렵도록 교묘하게 글을 쓰는 것이 포인트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이것을 과제로 내준 후에, 선생님은 우수한 묘사글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앞서 제시한 유추게임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내용 추리 협동학습

실제로 이 수업을 진행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든 상황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찰이 결여된 일방적 관점이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거나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함께 그리는 수업

이 수업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른 교과목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 운영해보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상황을 묘사하는 글을 쓸 때, 그 관점의 주인공인 사물이 꼭 생명체일 필요는 없다. 무생물인 일상 속의 물건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물건들이 주인공인 의인화된 소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역사교과 시간을 예로 들어보자. 임진왜란의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의 관점으로 명량해전의 상황을 묘사한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 짝막한 이야기이겠지만, 칼의 시각에서 그 마지막 해전의 장렬한 순간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명량해전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미리 알아두어야 유리할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글쓰기 훈련과 함께 역사적 사실을 좀 더 생동감있게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부록

 아래에 제시된 글을 읽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둠구성원들과 함께 추리해보세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 속으로 한가로이 도보여행을 떠났다. 나는 처음 와보는 그곳의 주변 풍경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맨 뒤에 뒤쳐져 걷고 있었다. 수풀이 우거진 그곳을 벗어나자 꽤 넓은 공터가 나왔는데, 맨 앞에 아빠가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형과 누나들이 걷고 있었다. 나는 아직 숲 속의 구경거리들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육중하게 ‘쿵!’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커졌다. 소리가 커질수록 땅의 흔들림도 더 심해졌다. 맨 앞에 앞서 가던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피해!”

내 앞에서 걷고 있던 둘째 형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숲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빠와 형들을 따라 처음 숲길 여행에 나선 나는 무서움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하고 길쭉한 타원형 물체같은 것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거대한 물체가 앞서가던 형과 누나들을 덮쳐버렸고, 나는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추락했던 우주선같은 물체는 다시 하늘로 떠오르더니 저쪽 인근 지역에 커다란 굉음을 내며 다시 추락하였다. 그리고 그 굉음은 반복되면서 멀어져 갔다. 어리둥절함도 잠시 뿐,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빠와 형들이 길 위에 쓰러져 피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이것은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제시된 글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학생들이 유추해보도록 시간을 준 뒤 조별 토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의 발표가 마무리되면 상황묘사에 대한 원작자(혹은 교사)의 의도를 공개한다.

※ 위 예시글의 경우

- 예시글의 아이디어 출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 아이디어를 각색함.
- 예시글의 주인공: 수풀 속에 처음 여행 나온 막내 개미
- 예시글의 상황: 공원 수풀 속으로 여행을 나온 개미 일가족은 수풀을 벗어나 공터(인간들의 산책로)로 들어서는 순간, 조깅을 즐기고 있던 인간의 신발 밑창에 밟히는 비극을 겪게 된다.
- 예시글의 성립을 위한 극적 상상:
 1. 개미도 인간처럼 사고력이 있다.
 2. 개미들도 한가롭게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활동지> 관점 전환 글쓰기

나도 예비 SF 소설가!!

학번: _____

이름: 최 * *

♥ 상황묘사

내가 태어났고 난 후에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곳들은 흠뻑히 새로운 곳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늘 비슷한 곳이고 항상 어둡거나, 바닥이 딱딱하거나, 누군가의 목소리는 들리더라도 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주변은 늘 어둡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어째서인지 요즘에 내가 듣는 소리들은 대부분 신음소리, 또는 울부짖는 소리, '찰칵' 하고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요즘에는 친구 몇 명이 사라지는 일들도 많다. 분명 떨어져 있었는지도 얼마 뒤 없어지거나 다음날 어딘가에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도 듣는다. 나는 점점 무서워 지는 날들이 많다. 항상 대 여섯 명으로 사라지는 친구들과, 점점 자주 들려오는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 부쩍 늘어난 이사, 이따금씩 들려오는 주인 모르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자주 들려오면 이제 사라지는 건 내 차례가 된다는 무서운 소문.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제는 답답한 의문까지 든다. 오늘은 일단 나는 무사하니, 그냥 잠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참나에 또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가끔씩 듣는 소리인데, '발소리'라고 말하는 것 같다. 점점 가까이 들린다. 혹시 나에게 오는 건가? 결국 내 차례인 거야? 여러 생각이 겹치고 생전 보지 못한 빛이 한무리로 들어닥쳤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머리 위로 그들이 지고 물이 잠혀 쩌르르른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시야에 보이는 것은 길고 복잡하게 생긴 무언가와, 너모 뿔려있는 커다란 구멍 사이로 보이는 어둡지만 빛이 보이는 풍경들. '박'이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는 금세 어느 구멍 속으로 빠져들었다. 구멍에 빠져서 멈춘 곳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되게 좁고, 주인 모르는 목소리도 더 잘 들렸다. "이제 출발하지?", "조심하게?". 무슨 뜻이지? 나는 흔들리면서도 빠르게 이동 강하고 있었고 불- 쪼는 기분이 몇 번씩이나 들고 드디어 뿔려있는 구멍 안살하기도 전에 들도 보도 못한 광음이 들었다. "당-"이라고 몇 번씩이나 들리고 내 몸이 앞으로 점점 밀려지더니 뜨거운 바닥에 서게 되었다. 너무 뜨겁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곧 이어 몸이 아주 세게 밀리면서 바람을 타고 앞으로 쭉 뻗었다. 바람은 시원했고 시야에는 흙이나 모래색과 비슷한 벽을 뚫고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바깥'의 바닥은 붉은 꽃이 날린 것처럼 붉은 무언가가 퍼진 바닥이었다.

- 예시글의 아이디어 출처: _____
- 예시글의 주인공: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독립군이 혼 총알
- 예시글의 상황 설명: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운동가가 혼 총알이 발사 되기 전에 살아온 날들.
- 예시글의 성립을 위한 극적 상상: 일제강점기

